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 : 沈 明 求
編輯人 : 沈 載 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 話 : (02)2267 - 7857
(02)2263 - 7897
FAX : (02)2269 - 7755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八世祖 靑城君 漢城左尹 胡襄公 諱 順徑 事蹟(下)

▲ 호양공 신도비

▲ 의역비

또한 공의 맏아들 첨정(僉正)과는 동방(同榜)의 甲友이다. 이리하여 나에게 명을 위촉함으로 감히 글을 못한다하여 사양하지 못하고 아직 공의 世系와 자손의 富함만을 기록하고자 한다. 배위는 貞夫人 申氏로 고령(高靈)의 망족(望族)이다. 성품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정밀하고 민첩하였고 자식(資識)또한 過人하여 공을 섬김에 있어서 뜻을 받들어 따랐으며 어김없이 家事를 처리하였으나 공보다 먼저 기축년(己丑年:1529)에 죽었다.

三男三女를 낳으니 맏은 희원(希源)으로 辛酉(1501)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여 지금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으로 있으며 다음은 흥원(興源)으로 계유(癸酉年:1513)년 進士시에 합격하였으나 공보다 먼저 죽었다. 다음은 인원(引源)으로 과의부사과(果毅副司果)로 있었으나 역시 공보다 먼저 죽었다. 측실의 아들은 장원(長源)이니 우림위(羽林衛)로 있다.

첨정(僉正)은 군수 韓世俌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으니 맏은 홍(泓)으로 임진년(壬辰年:1532)의 武科에 합격하고 무술년(戊戌年:1538) 英詩에 발탁되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됐고 다음은 연(演)이니 선략부사과(宣略副司果)로 있다. 맏딸은 生員 金世葉에게 시집갔다. 후취는 첨사 강적(僉使 康積)의 딸이다.

進士는 신세경(辛世卿)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았는데 진사 황기로(黃耆老)에게 시집갔고 司果는 박세구(朴世矩)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았는데 홍문관 직제학 민세량(弘文館直提學閔世良)에게 시집 갔다.

제양(齊陽)은 외아들 雲을 낳으니 부장(部將)이 됐고 參奉은 3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공빈(孔賓)이요 다른 아들은 모두 어리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높은 뫼에서 신기함을 내려 대대로 석보(碩輔)를 지으셨네. 은혜로움이 증여(蒸藜)에 흡족하니 공훈이 왕부에 이어지네. 경사로움을 심어 말길이 장원하니 문중에 규조(圭組)가 가득하다.

前代를 빛나게 하고 후손의 길을 열어 주니 순서를 따라 조상의 위업을 이었네. 공은 남 다른 자질을 타고나서 젊은 나이에 무술을 익혔네.

大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을 이와 같이 키우셨네.

백리 땅에 출재(出宰)하여 백성을 위하여 사직을 빛냈으며 남방에 진장(鎭將)이 되어서는 나라를 위해 도적을 막았네.

맹서는 금궤(金匱)속에 감추어 두고 은혜는 남방에 베풀었네.

만년(晩年)을 편안하게 보양하니 하늘이 도와 복이 많았네.

圖書는 방에 가득하고 거문고와 술이 벗이 되어 타인과 더불어 하는 일을 춘화(春和)같이 좋아하고 마음 속에는 이미 기쁨과 성냄이 모두 끊어졌네.

수가 팔십을 넘었으나 몸에는 병이라고는 없었네.

홀연히 신선되어 가시니 어찌 이수(二竪)에게 돌릴까? 坡州의 산기슭에 소나무와 잣나무 두어 그루 있어 와서 공의 유택(幽宅)정하니 千古에 전해짐을 보이리라.

대제학성세창(大提學成世昌)은 짓다.

주(註)

1. 준자(俊資) : 俊才. 뛰어난 재주 또는 그 사람. 英才
2. 절윤(絶倫) :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남. 절류이륜의 준말.
3. 황난(荒亂) : 황음(荒淫)하고 문난(紊亂)함
4. 위변어마(圍邊圉馬) : 임금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터 주변에서 기르는 말.
5. 옥사(獄事) : 반역죄인 등 중대한 죄를 다스리는 일.
6. 수금(囚禁) : 죄수를 체포해서 구금하는 일
7. 반정(反正) : 正道로 돌아가는 일. 난세를 바로잡아 태평한 세상으로 되게함. 즉 포악한 임금을 몰아내고 바른 임금을 대신 세움.
8. 추대(推戴) : 떠받듦. 공이 있는 사람을 상당한 지위에 올려놓음
9.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10. 정조사(正朝使) : 새해가 되면 중국 황제에게 신년 하례를 위해 보내지는 사신. 신년하례사(新年賀禮使)
11. 정침(正寢) : 정전(正殿). 평상시 거처하던 침실.
12. 념정(恬靜) : 평온하고 조용함.
13. 맹부(盟府) : 반정을 위해 죽기를 맹서한 사람들이 일을 성취한 뒤 당시의 기록을 보관하 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곳
14. 조리(操履) : 조행(操行). 몸을 가지는 행실.
15. 동방(同榜) : 방(榜)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는 곳. 동방은 같은 방에 듬. 즉 같은 날에 과거에 합격함.
16. 갑우(甲友) : 승우(勝友). 친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친구.

青松沈氏大宗會

第三十三回 定期總會 開催公告

西紀 二〇〇三年 第三十三回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실 줄 사려되오나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앙망 하나이다.

◎ 다 음 ◎

■ 일 시 : 西紀 二〇〇三年 五月 十一日 (일요일) 午前 十一時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 전 화 : 〇二—七六〇—一四七三

■ 회 비 : 一萬원

◎ 부 의 안 건 ◎

一. 二〇〇二년도 회무보고 심의의 건
二. 二〇〇二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三. 二〇〇三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四. 二〇〇三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五. 대동세보 결산보고
六. 임원개선의 건
七.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西紀 二〇〇三년 三월 일

청송심씨대종회
회 장 심 명 구

◎ 문의처 : 〇二—二二六七—七八五七

* 별도로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망족(望族) : 명망(名望)있는 집안. 즉 갑족(甲族)
18. 증여(蒸藜) : 각 지방에 흩어져서 번성하는 많은 명아주. 전하여 많은 자손 또는 풀과 같 이 미천한 것.
19. 규조(圭組) : 조정 관원들이 일상에 쓰는 홀과 갓끈. 전하여 조정 관원.
20. 출재(出宰) : 조정의 벼슬아치가 승직 또는 전보(轉補)되어 지방의 守令으로 나감.
21. 이수(二竪) : 두 더벅머리. 진나라의 경공(景公)이 병으로 누어 있을 때 병마가 아이들로 화신(化身)하여 왔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끝〉

十三 相丞의 事蹟(神道碑文) 연재

斗室相公(諱:象奎) 諡狀 ⑦

무술 六월 二十일 집에서 돌아갔으니 향년 七十三이었고 병이 위독하자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치료하라고 한 것이 두번이요 부음(訃音)이 들리자 조회(朝會)를 철폐하고 부조(賻吊)를 예(例)대로 하였으며 교지(敎旨)내리기를 이 대신(大臣)은 네 임금을 섬긴 원로(元老)요 청아(淸雅)하고 개제(愷悌)한 모습과 단정(端正)하고 방정(方正)한 지조와 나라를 빛낸 문장과 집에 전하는 글씨는 한 조정의 자랑 뿐만 아니다. 정조 때부터 대우가 융숭(隆崇)하여 거듭 심복으로 일을 맡기셨으며 또한 순조대왕이 선왕이 대우한 것을 본받아 영의정에 발탁하였고 나 소자(小子)에 이르러 독실하게 의지하고 믿은 것이 시구(蓍龜:점칠 때 쓰는 시초(蓍草)와 거북)와 같을 뿐만 아니었는데 하물며 원상(院相)으로서 일을 도왔음이리오 일단 나라 위해 애쓴 마음을 어디에서 다시 볼까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집에서는 공의 유지(遺志)로써 예장(禮葬)을 사양하니 특별히 탁지부(度支部)에 명하여 장수(葬需)를 넉넉하게 도와주니 애영(哀榮)의 은전(恩典)이 이에 갖추어졌다. 장지(葬地)는 옛 풍덕부마륵담리(豊德府馬勒潭里) 곤좌원(坤坐原)으로 공이 스스로 점쳐 놓은 곳이다. 배위는 정경부인 연안이씨이니 판서 면응(冕膺)의 따님으로 유순(柔順)하고 정숙하여 육친(六親:부모형제처자)이 다 좋다고 하였다.

공보다 三년뒤에 낳았고 九년 먼저 졸하니 처음에는 임시로 묘를 썼다가 이장 합폄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남은 정우(正愚)요 차남은 정로(正魯)로 모두 일찍 졸하여 족손(族孫) 희순(熙淳)을 장남의 사자(嗣子)로 삼았다.

공은 모습이 바르고 엄격하며 지조와 행실이 굳고 확실하며 정영(精英)한 기운이 얼굴에 스스로 나타나고 장중(莊重)한 거동(擧動)이 또한 담소(談笑)하는 중에 나타나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록 임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의(時議)로써 결단하여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지킴으로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조정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감히 의가 아니면 간섭하지 못하고 비록 억지를 써도 당할 수 없으니 세상사람들이 대쪽같다 하였으며 공도 또한 근심하지 않았다. 공은 문장에 차라리 간략할 망정 쓸데없는 글을 쓰지 않고 차라리 어렵게 쓸망정 흘리지 아니하여 궁벽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천박한 글의 더러운 곳을 깨끗이 닦아 주는데 힘쓰고 초고(草藁)는 세번 네번 고치지 않고서는 내놓지 않았다. 더욱 편지 쓰는데 능하여 붓을 들면 주옥(珠玉)같이 아름다운 문구가 종이에 가득히 쓰여지니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모두 진귀(珍貴)하게 여겨 아꼈다.

시(詩)의 공부도 많이 하여 글 솜씨가 정교(精巧)하고 조예(造詣)가 깊어서 다른 사람은 끝내 따라 갈 수 없었다. 공은 자호(自號)를 두실(斗室)이라 하고 두실존교(斗室存稿) 十六권이 있다. 공이 내각(內閣)에 들어가자 정조의 은총(恩寵)이 특이(特異)하였으나 벌(罰)을 받고 귀양간 일도 동료보다 많았으며 혹 공의 문자(文字)를 보면 임금이 웃으면서 이 세상에 드물게 있는 기이(奇異)한 재사(才士)라 하였고 여러가지 편집(編輯)할 일이 있으면 공에게서 의례(義例)를 들으며 비록 상중(喪中)이라도 또한 집에서 감정(鑑定)하라 명하고 한 편(編)을 올릴 때마다 늘 칭찬하였다. 순조조 초에 시기(猜忌)하는 자의 모함(謀陷)으로 거의 편안하지 못하였으나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동청(東廳)의 전고(典故)와 서청(西廳)의 문학(文學) 일체를 공에게 주니 공도 또한 보은(報恩)하는 뜻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공에게 앞자리에 오라고 하여 조용히 시무(時務)의 급한 것을 묻고 책을 만들라 하니 만기요람(萬幾要覽) 열두권을 올려 길이 임금의 책상에 놓고 항상 보시라고 하였다. 공이 비변사(備邊司)에 있은지 이미 오래되어 나라의 법칙(法則)과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의 일을 모두 관리하지 않음이 없어 본말(本末)을 잘 이해하는 것은 조정에서 대강 경재(卿宰)로서 재지(才智)가 있다고 하는 사람중에서 공보다 계책을 잘 세우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공이 부모에게 애연(僾然:어렴풋한 모양)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함재공의 책모으기 좋아하는 뜻을 이어받으려고 장서(藏書)하지 못한 좋은 책, 귀한 책을 다방면으로 구입하고 벌도로 집을 지어 함재공의 유진(遺眞:사진)을 모셔다가 걸고 좌우에 책을 장서하여 한번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의관을 엄숙히 정제한 뒤에 자물쇠를 열었으므로 장서가 나라안에서 가장 많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손대지 않은것 같았다.

공이 겨우 두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회갑(回甲)의 해에 이르러 비록 예법(禮法)과 형률(刑律)로는 감히 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추복(追服:초상 때 못입은 복을 뒷날에 입음)할 것을 세번 소청(疏請)하고 산소에 가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진정(陳情)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공이 크게 슬퍼하여 흰 옷을 입고 그 해를 마쳤으며 두 아우를 어루만지고 사랑하였으나 끝내 조정이야기는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안살림에 독실한 것이요 평거(平居)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반드시 집안 일을 보살피니 안팎이 화목하였고 그 방에 들어가면 도서(圖書)와 녹권(錄券)이 아담하게 정돈되었다.

그 뜰을 보면 오직 얕은 연못에 오래된 돌과 꽃, 대나무가 죽 늘어서 있을 뿐이고 항상 말하기를 이용후생(利用厚生: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재물을 풍부히 하여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이 백성의 근본이라 하고 제작(製作)하는데 견고(堅固)하고 치밀(緻密)하게 하고자 하고 날림으로 하고자 않으며 씨를 심고 식물을 가꾸는데 정돈하고자 하고 화려하고자 않으니 그러므로 비록 문필(文筆)에 종사하지만 일거일동(一擧一動) 끝일까지 잘 맞고 종들도 모두 그릇에 따라 부리므로 비용은 덜어지고 일은 이루어지고 힘은 적게 들고 효과는 크니 사람들이 공의 집에서 버릴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공의 정력(精力)이 주밀(周密)하고 조리(條理)있게 처리하는 것과 지혜와 생각이 두룰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도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은 상서로운 세상의 재주를 쌓고 재상(宰相)이 되겠다는 뜻을 품어 보불(黼黻:아름다운 문장)과 생용(笙鏞:관악기와 큰 종)을 기대하였고 염매(鹽梅:임금을 보좌하여 선정을 베풀게 함)와 주집(舟楫:국난을 방어함)을 맡았으니 조봉(遭逢:현신(賢臣)이 명군(明君)을 만남)함이 장하였고 믿고 의지함이 컸다. 그러나 공이 정조 때에는 십년동안 금근(禁近:문학으로 임금을 모시는 신하)으로서 은택(恩澤)을 가장 많이 받았으므로 임금에게 충성하는데 힘썼으나 세상은 그것을 알아서 전하지 못하였더니 순조이후로는 임금의 총우(寵遇)가 극진하였고 벼슬이 점점 높아져서 여덟번 이조판서와 병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세번 탁지(度支:호조)를 맡았으니 사공(事功)이 언의(言議: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문)보다 앞섰고 부서(簿書)가 저술(著述)보다 많았음이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또 공이 평생 도운 것은 오직 임금의 성현의 학문을 두텁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처음 벼슬하였을 때 경향(傾向:마음 또는 형세가 한 쪽으로 쏠림)으로 보아 장차 큰 뜻을 세울듯 하더니 몇해가 안되어 공이 낭패를 당하고 나라를 버리고 간 뒤 六七년간 나라와 세상의 도의가 날로 더욱 어지러워지니 임금이 이로 말미암아 공을 다시 임용(任用)하여 밝히고 힘쓰게 한 것은 공의 높은 덕과 오래된 명망(名望)이 좌지(坐地:극히 높은 지위)에 족하나 공의 얼굴과 모발(毛髮)이 또한 풍상(風霜)을 겪어서 쇠(衰)한 나머지에 다시는 당세(當世)를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사직(辭職)할 것을 빌었은 즉 공은 비록 조금이나마 포부를 폈다고 하겠다.

인영(寅永)이 늦게서야 공의 당당한 덕을 본지 일천(日淺)하나 공에게 정을 두어 알려고 힘을 쓴 것은 실지 깊었다. 지금 참봉군(參奉君)의 부탁으로 참람(僭濫)되고 망녕됨을 헤아리지 않고 간략하게 공의 계벌(系閥)과 천력(踐歷)을 써서 태상씨(太常氏:증시(贈諡)를 맡은 관아)에 시호를 신청하니 인영(寅永)의 말이 아니라 즉 한 세상의 말이로다.

〈끝〉

◐ 春季時享日表 ◐

2003年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소 재 지
시조	문림랑공(휘:洪孚)	4月6日	한식	日	청송군 청송읍 덕리, 보광산
	중대산소	〃	〃	日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중대산
二	합문지후공(휘:淵)	4月12日	3月11日	土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三	청화부원군(휘:龍)	4月14日	3月13日	月	안성시 안성읍 당왕동 山19
三	배위 金씨	〃	〃	〃	안성시 안성읍 도기동 山64
四	청성백(휘:德符)	4月16日	3月15日	水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山110
四	배위 淸州 宋氏	4月18日	3月17日	金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山8번지
四	악은공(위:元符)	4月26日	3月25日	土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
五	안효공(휘:溫)	4月6日	한식	日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의실
五	배위삼한국대부인(順興安氏)	4月15日	3月14日	火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능말
왕후	소헌왕후(세종대왕비)	4月28日		月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	인순왕후(명종대왕비)	4月27日	4째 일요일	日	서울시 노원구 공능동(태능내 강능)

독립운동가 沈 熏 ④
(1901~1936)

당시 이 시는 망국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던 한국 민중의 분노를 고조시켰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선생이 예견한 대로 융희황제의 인산일인 6월 10일 서울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선생의 시 〈통곡속에서〉는 6.10만세운동을 폭발시킨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후 선생은 1927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를 공부하였고 귀국한 뒤에는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를 각색 감독하여 같은 해 10월 26일 단성사에서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22일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경성고보 동창생 박헌영이 병 보석으로 출옥하자 그를만났다. 이때 선생은 일제의 고문과 병으로 형편없이 변해버린 박헌영의 몰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일제에 대한 분노를 〈朴君의 얼굴〉이라는 시에 담았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군의 얼굴〉

이게 자네의 얼굴인가?
여보게 박군, 이게 정말 자네의 얼굴인가?
안콜병에 담가 논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마르다못해 해면(海綿)같이 부풀어 오른 두뺨
두개골이 드러나도록 바싹 말라버린 머리털
아아 이것이 과연 자네의 얼굴이던가?

(중략)

박아 박군아 XX(헌영)아!
사랑하는 네 아내가 너의 잔해를 안았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자들이 네 손을 잡는다.
이빨을 악물고 하늘을 저주하듯
모로 흘긴 저 눈동자
오! 나는 너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오냐 박군아
눈은 눈을 빼어서 갚고
이는 이를 뽑아서 갚아주마!
너와같이 모든 X(한)을 잊을 때까지
우리들의 심장의 고동이 끊길 때까지

1927년 12월 2일 작성된 이 시에서는 박헌영을 매개로 표현된 친구에 대한 선생의 지극한 사랑과 일제에 대한 강렬한 투쟁의식이 담겨있다. 비록 여건상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투쟁의식은 선생의 일생을 관류하고있는 것이다.

이듬해 1928년부터 선생은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하면서 1930년에는 조선일보에 소설 〈동방의 애인〉을 연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게재 정지처분으로 중단되었고 이어 불사조(不死鳥)를 연재하였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이들 두 소설이 모두 선생의 중국망명 유학당시의 생활을 소재로 하였고 특히〈불사조〉는 일제에 대한 옥중투쟁을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 선생은 3.1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옥고까지 치른 선생에게 있어 그 기념일은 매년 특별한 날이었지만 이해에는 유난히 더 그랬다. 그것은 1929년 11월 발발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광주학생운동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탓이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원산노동자 총파업과 용천 소작쟁의 등으로 눈부시게 발휘된 노동자 농민 등의 항일투쟁을 목격한 감격인지도 모른다. 선생은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생은 항일 저항문학의 최고 금자탑으로 불린 〈그날이 오면〉 이란 시를 지어 발표한 것이다. (종보 37호에 게재)이후 선생은 1931년 조선일보를 사직하고 경성방송국 문예담당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사상문제로 곧 그만두었다. 그리고 부모가 살고있던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忠南唐津郡松嶽面富谷里)로 낙향하여 창작생활에 정진하였다. 여기서 선생은 1932년 그동안 발표한 시들을 묶어 시집 발간작업을 추진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의 시집이었는데 당시 이는 일제의 검열로 빛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해방직후에나 간행되어 유고집이 되고 말았다.

1933년 선생은 당진에서 장편소설 〈영원의 미소〉(永遠의 微笑)를 집필하여 7월 10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으로 취직하여 상경하였으나 곧 그만두고 다시 당진으로 낙향하였다. 이듬해 선생은 장편소설 〈직녀성〉(織女星)의 집필을 시작하여 3월 24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고 당진에 필경사(筆耕舍)라는 자택을 몸소 설계하여 지었다. 여기서 바로 1935년 〈상록수〉(常綠樹)라는 논촌 계몽소설을 집필하였다.

〈상록수〉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에서 전개되고 있던 야학운동과 공동 경작회 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다. 당시 부곡리 에서는 선생의 장조카 沈載英이 1932년부터 농촌 야학을 운영하며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그는 12명의 젊은이들과 공동경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생은 이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때 마침 동아일보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여 농산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공모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는 1931년부터 동아일보사가 전개하고있던 브나로드(귀농)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에 선생은 부곡리의 공동경작운동과 1935년 1월 경기도 반월면 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펴다 요절한 최용신(崔容信)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상록수〉를 완성하였다.

1936년 선생은 〈상록수〉의 영화화에 나서 선생이 각색 감독을 맡기로 하고 제작사까지 선정하여 제반준비를 갖추었지만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생은 〈상록수〉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마음먹고 상경하여 한성도서주식회사 2층에서 침식하며 간행 작업에 힘을 쏟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다.

1936년 9월 16일 오전 8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3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끝〉

누군들 늙지 않으랴 (下)

부회장 심영구

"그놈의〈세계화〉가 무엇인지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더니 찾아오기는 커녕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군. 모두가 며느리 잘못 본 탓이지."

"이 친구 왜 며느리 탓만 하누, 그래도 내 자식은 싸고 도느라구."

통바른 L의 핀잔이다.

이제 늙은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에겐 짐으로 둔갑을 했고 능력 없는 부모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여러 아들딸을 두어 다복하다고 칭송이 자자하던 어느 노파는 한 자식도 모시겠다고 하지 않아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의 눈칫밥을 얻어먹는 처량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당국에서도 별난 묘안을 짜내 부모를 모시는 공무원은 진급에 가산점이 붙고 명절 때면 효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생일 때는 효도 휴가까지 준다던가. 고맙긴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보답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남몰래 음덕(陰德)을 베풀었는데 더욱 보상심리에서 부모를 모신다면 참으로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자기 생활비를 절약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용심(用心)이 중요하지 국민의 혈세로 주는 돈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사드린다면 이것을 효성이라고 해야 옳을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심(孝心)이 중요하지 과자 봉다리나 옷가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공자(孔子)는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 대해 '기거함에는 공경을 다해 받들어 모시고 봉양함에는 즐거움으로 섬기고 병이 드셨을 때는 근심을 다해 간호해 드리고 돌아가심에는 슬픔을 다해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엄숙하고 경건히 할 것이다(子曰孝子之事親也 養則致其樂 病則致其哀 祭則致其嚴)' 라고 했을 뿐이지 물질적인 효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아울러 '먹이는 것을 어찌 효라 하겠는가. 개나 돼지도 거둬 먹이거늘 이것도 효라 할 수 있느냐' 고 하였다.

선심후물(先心後物)이라고 해서 마음이 먼저요 물질은 나중이며 심주물종(心主物從)이라고 해서 효심이 주(主)며 물질은 마음에 따를 뿐이라고 했으니 그 정성, 그 심덕(心德)을 효의본(本)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물질로만 되는 줄 알고들 있다.

어쨌거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이든 이들의 신음이 그치지 않아도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영원히 젊을 줄 아는지 늙음이 닥쳐오고 병고가 올 줄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찬란한 장밋빛으로 장식하며 떠오른 아침 태양도 저녁이 되면 노을로 장막을 치며 쓸쓸히 서산으로 지고 만다.

젊은이들도 모두 겪어야 할 순리, 그 순리를 안다면 부모와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오손도손 삶의 꽃을 피우는 것부터가 효본의 이음줄이란 것을 왜 모를까.

오죽했으면 백낙천(白樂天)이 '홍안소년들이여 늙었다 웃지를 마라. 나도 지난날엔 홍안소년이었지. 너희도 호호백발 멀지 않았어.' 라고 읊었다.

〈끝〉

대종회 부회장 심영구

고전교훈(古典敎訓)

堯之有天下也에 茅茨不翦하고 采椽不斲 하다
(요지유천하야) (모자부전) (채연불착)

옛날 中國의 聖君 요(堯) 임금은 천하를 얻었는데도 띠를 엮어 지붕을 이고(덮고) 그 끝을 가지런하게 베어 내지 아니하고 서까래를 다듬지 아니하였다.
(사치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였다는 뜻)

光州 聖植 제공

青松沈氏 大同世譜(庚辰譜) 首卷 續編 發刊 하기로

大宗會에서는 지난 二월 十一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에 간행된 대동세보 (경진보)에서 수권에 수록된 현조(顯祖)의 사적이 상당부분 수록이 누락되었고 또 功臣록 文化財록 등에서 충분히 수록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대동보의 후속조치로 수권의 속편을 제작 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속편은 앞으로 약一년간의 기한으로 완료하게 될 예정이며 이 속편을 간행하는데 있어 全宗人이 적극 협조하여 지난 대동보 수권에 이어 우리문중의 또 하나의 보전(寶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권 속편에 수록할 내용을 이 하단에 공고 할 것이오니 各僉宗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들을 모아 대종회 문화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2월 14일 미국LA에 거주하시는 교포 심후식씨로부터 한 장의 소식통이 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되었습니다. 심후식씨는 현재 미주 종회를 결성하고자하여 대종회와는 항시 왕래하고있는 분이시며 지난번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식을 아래와 같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름 : 심 후 식(남) 2003.2.14(금)

미국에서 보는 반가운 홈페이지

작년 한국 방문시 받아본 CD로 족보를 보다가 생각지 않게 홈페이지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축하 드리고 더욱더 알찬 대종회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빌며 수고 하시는 대종회 종친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종회장으로 추대 받고 이제서야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2003년 3월 1일 오후 6시 처음으로 대종회 미주종회를 위한 1차 발기 모임이 LA의 용궁식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현재16분)에게 오는 모임 알리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전화로 연락 드린 여러분들 미주종회의 탄생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주에 계신 종친 명단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연락 하겠습니다. 모임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고 종회소식 홈페이지 통해 볼 수 있도록 이곳의 종친께 널리 홍보 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유익한 홈페이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03.3.7(금)

미주종회 발기인 모임

3월 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코리아 타운에 있는 용궁식당에서 총 12명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견례와 개인소개를 하고 9인의 발기인을 선출하여 1차 미주 종회 창립 총회를 5월 3일(토) 오후 4시 (장소 추후통보)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발기인 대표에 본인(심후식)과 총무(심준보)를 선출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발기인들은 종회 설립을 지근의 일가에게 알려 창립 총회에 많은 일가 분들이 참석하도록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읽으시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하셔서 창립 총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하여 주시고 저에게 연락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명단 : 근섭, 원섭, 상은, 길근, 영견(학택) 재기, 후식, 재봉(여), 준보

접수처 안내

■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일가 분들께서는 일가 분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시어 미주 종회 설립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심후식**
<미국>
전 화 : 818-353-4004
핸드폰 : 213-675-9951

法 律 相 談

변 호 사 **沈 勳 鍾**

서울시 중구 남대문 5가
(서울역 건너편)
大宇빌딩 1101호
전 화 : 752-3101
752-3102
752-3103

경찰고문변호사

변 호 사 **沈 漢 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빌딩 411호
서울 교대입구 4거리
전화 : 02)521-0616 · 523-6116
FAX : 02)521-0617

안 내

大同世譜 首卷 續編 刊行資料 수집에 관한 안내

一. 顯祖의 事蹟 (신도비문, 묘갈명, 행장 등 수권에서 누락된 분)
二. 文化財로 지정된 山所 또는 碑 등
三. 門中 齋室, 祠堂 등
四. 현조의 유묵, 영정, 유품 등(사진)
五. 항일(抗日) 독립운동가의 사적
六. 現代人物 편(職位 설정 미정)
七. 現代作家(소설가, 시인, 서예, 화가 등)

▼접수기간 : 二〇〇三년 八월 三十一일
▼연 락 처 : 〇二-二二六七-七八五七
〇二-二二六三-七八九七
▼팩 스 : 〇二-二二六九-七七五五
▼우편물 주소 : 서울 중구 오장동 一四-一〇
청송심씨대종회 문화부
▼우편번호 : 一〇〇-三一〇

二〇〇三년 三월 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明求

宗 事 消 息

端懿王后(景宗大王妃)時享奉行

2003, 3, 9(3월 둘째 일요일)

亞獻 : 昌輔　　참석인원: 16명

亞獻官 昌輔 헌작

찬반원 도열

安孝公不祧廟忌辰祭奉行

2003, 1, 26(음:12월 25일)

初獻 : 萬鎭　　大祝 : 相龍
亞獻 : 昌燮　　執禮 : 相稷
終獻 : 應植　　執事 : 鶴鎭 彦村

安孝公 正月 節祀奉行

2003, 2, 1(음 : 1, 1)

初獻 : 寬鎭　　大祝 : 萬鎭
亞獻 : 相憲　　執禮 : 相稷
終獻 : 昌植　　執事 : 彦村 應植

益山宗會 上半期 理事會 開催

益山宗會에서는 2003년 새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5일 상반기 이사회를 시내 益山로타리 黃土식당에서 가졌다. 출석율 95% 이상의 이사가 한자리에 참여하여 ① 2002년도 감사보고 ②정관개정 ③會長 사퇴서 반루 ④2003년 정기총회에 대비한 사전 의론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특히 장기간 병원에 입원중이시던 相銀 이사가 퇴원 참석함으로서 회의분위기는 더욱 밝았으며 앞으로 조속히 쾌유하기를 다같이 기원하였다. 이어서 현섭 이사의 서울 移居와 運榮이사의 타계로 인해 결원이 생긴 자리를 종인 相榮씨로 하여금 영입 보완케 하고 끝으로 2002년 송년 간담회 시 못 다한 덕담을 나누면서 래4월 11일 전남 장성 彪義祠에서 거행되는 僉正公 선무공신 友信將軍의 春享祭에 참여하여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2003년3월

제공 : 益山宗會 總務　　佶 燮

김포종회 계미년 1/4분기 이사회

2003년 2월 18일 김포시 북변동 우식식당에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종회 계미년 1/4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회합은 지난해인 임오년 12월 3일 4/4분기 이사회 이후 2개월여만의 모임이다. 음력으로 정월 17일이라 아직도 설 분위기이다. 상견례로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라는 덕담일색이다.

이번에도 89세가 되시는 상윤 고문이 정정한 모습으로 참여하셨고, 본 종회의 융성을 기약하는 건배 제의는 85세가 되시는 원섭 고문이 하셨다.

회의 주제는 매월 3월중에 개최하는 본 종회 정기총회 안건인데 관례대로 일자와 장소는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종회 소식으로는 3월 8일 항섭 이사 아들의 혼인식이 3월 22일에는 완섭 이사의 칠순연이 있게된다. 많은 종인의 왕림을 바란다.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의 후세인 축출전쟁이 초 읽기에 들어가 세계가 들끓고 있다.

나라 안에서도 열차의 역주행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더니 대구지하철의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무고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당국은 조속한 수습이 온 국민의 한결같은 여망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3. 2. 20

(제공:김포종회)

≫ 봄의 향기 ≪

하루해가 길게만
느껴지던 그날
해늦은 겨울 빛이 지워질 때
부끄럼 없이 풀어주던
그리운 밤은
모두가 내 탓인 양
술래가 되고 있다

이것이
기다림의 해후였다면
저린 가슴 아니어도
꽃망울 터지는 생명의 소리로
그대의 무게가

확인되리니
언제나 넉넉히
고여드는 벅찬 기억처럼
속 깊은 인내의 여정에
피어낸 믿음 그대로
환한 웃음 비켜가는 봄빛은
하얀 꿈으로 오더이다.

詩 沈應燮

大田·忠南 地區宗會 任員名單

고 문 : 상규 재원 중재영
회 장 : 일섭
부회장 : 규찬 정보
감 사 : 기복 재철
이 사 : 중섭(부여) 상우(서산)
재선(공주) 성보(대전)
창엽(대전) 화섭(대전)
의철(대전) 홍택(대전)
총 무 : 규선
지역간사 : 의수(공주) 덕보(논산)

甲山宗會(之浦世孫) 任員名單

顧 問 : 熙鳳
會 長 : 敬模
副會長 : 珞光
幹 事 : 敬天
監 事 : 승일
理 事 : 珞埈 道成 상옥 길남
總務 : 濼道

全北青松會 任員改選

會 長 : 安輔
副會長 : 宜喆 正秀
監事 : 相玉 秀一
總務 : 相根
財務 : 芳燮
會 員 : 宜斗 萬五 宜杓 海洙
相吉 的相 相懋 亨燮
義燮 珉燮 載玟 幸植
載南 載玉 載起 溶植
秀永 敏 玟輔 大道
揆泰

연습이 천재를 낳는다

부회장 심 갑 보

필자는 대구 코러스 합창단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와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을 낙(樂)으로 삼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때나 조수미와 홍혜경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듣고 최현수나 임웅균, 그리고 도밍고, 파바로티의 가곡이나 아리아를 들으며 황홀경에 빠지곤 했다.

저 분들은 천성적인 소질을 가졌기에 신의 경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며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몇 년전 『능인선원』의 지광 스님으로부터 『연습이 천재를 낳는다』라는 주제의 설법을 듣고 나서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자질과 후원자의 지원이 뒤따랐겠지만 본인 자신의 피눈물나는 반복된 연습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영광과 갈채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노래 한곡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부르기 위해 수백번, 수천번의 연습이 있어야 했었을 것이다.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서양인들을 놀라게 한 박세리나 김미현을 있게 한 비결도 바로 눈물겹도록 혹독한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세리가 벙커샷 연습을 위해 낮부터 어두운 밤까지 혼자서 땀을 흘리며 고독을 참고 연습을 계속했다는 사실과 김미현이 아이언샷의 정확성을 위해 어머니가 쌓아놓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정확히 쳐내면서 샷 연습을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7년 기능보조사원으로 대우중공업에 입사하여 20여년만에 품질관리 명장이 된 김규환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초등학교 학력으로 창원기능대학에 수석 합격하여 수석졸업을 하고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품질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 없는 좌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반복된 연습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가자격 2급 시험에 9번 떨어지고 1급 시험에 6번 떨어지면서도 그의 노력은 계속되어 결국 60여개의 각종 특허를 획득하기에 이르렀고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기계를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발명왕 에디슨은 2000번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친다음 전구(電球)를 발명하고 나서 그 과정을 "실패가 아니라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2000계단을 올라갔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조수미, 홍혜경, 도밍고, 파파로티의 노래를 들으며 황홀경에 빠지곤 할 때마다 저분들은 천성적 소질 때문에 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피눈물나는 반복된 연습의 결과였다.

바꾸어 말하면 2천번의 연습이 전구의 발명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이다.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기성세대들에게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즉 인터넷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PC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E-mail도 주고 받고 시대변화의 흐름이나 각종산업정보도 검색하고 인터넷 신문도 볼 수 있어야 한다.

홈뱅킹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전거래를 하고 B2B나 B2C거래를 통해 집에 앉아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필자도 99년도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판단아래 전경련 정보전략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하여 컴퓨터 활용기법을 공부했다. 그 결과 지금은 회사의 전자결재 시스템 운용과 활용을 할 수 있게되고 웬만한 자료 검색은 신문사의 홈페이지나 각종 웹싸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해진 두뇌조직으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수없는 연습이 뒤 따라야 했다.

디지털 카메라 작동법을 90% 정도 익히는데 설명서를 100번 이상 읽어야 했고 촬영한 영상을 PC에 옮겨 저장하고 E-mail로 친지들에게 전송을 하며 좋은 색상으로 인화지에 프린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했다.

요즘은 E-mail로 온 연하장이나 배경음악을 곁드려 배달되는 동영상도 받아보고 또 답신도 한다. 앞으로 세계는 반드시 디지털 경제의 시대로 전환되어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거래처 담당자와의 교신이나 정보도 E-mail로 주고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될 것이다.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보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신 많아지고 종이신문을 통한 정보보다 인터넷 신문을 통한 정보전달 량이 훨씬 많아질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을 늘려야한다. 더욱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연습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종회 부회장 심 갑 보

철잃은 뻐꾸기네들(下)

-月岳 沈晟求-

沈 晟 求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제법 쌓인 날이다. 내가 산에서 내려오던 길이다. 그들 몇 명이 꽤 높은 구릉 언덕 주목 밭 부근까지 올라와 있었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들인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수수한 평복에다 아직은 어두운 표정인데 모두가 그 눈밭에 맨발로 슬리퍼 차림이다. 순간적으로 어설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지나치다가 돌아보니 파로끄름한 담배연기가 누구의 입에선가 그들의 운명처럼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아니 저럴 수가' 하는 마음은 잠시나마 나의 착각으로 돌렸다.

'그러기에 수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겠지'.

아직 세정(細情)을 정화시키기에는 빠른 시간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그들이 측은해진다. 이곳에 오는 그들은 언제나 20세 전후의 아가씨들이다. 표정은 밝지 않아도 밉지 않은 얼굴에 체격도 허술한 데가 없어 보인다 수녀복을 입은 모습을 연상하면 맵시도 곱게 해사한 표정으로 바뀐다.

다음 날이다. 또 산에 어르려고 그 수녀원 앞을 지나는데 너댓명이 앉아서 도란거린다. "점심에는 도라지나 해서 밥을 좀 먹을랬더니 콩나물이래"하는 소리가 가늘게 들인다. '수행의 길이 어디 그리 수월한 것인가. 불같은 오욕칠정을 작은 가슴에 벅차게 묻어두고 끈질긴 모닥불처럼 안으로 안으로만 태워가는 인고의 나날은 멀고도 먼 길일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지나쳤다.

지극히 우연한 기회에 나는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공연히 가슴이 싸느랗게 식어 내렸다. 미혼모들이라는 것이다. 그 수녀원에서 출산만 하고 간다는 것이다.

아니, 아무리 막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그래도 뻐꾸기는 간간히 근처에서 울음소리라도 들려주는데 이들은 출산만 하고 영영 떠나 버리면 이들의 영아들은 고향도 애비는 고사하고 에미까지도 모르는 인생을 누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동물은 애비를 모른다. 그러나 에미는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는 모정을 다하는데, 강철도 녹인다는 모정이 고작 이것이라면 누가 용납할 것인가.

예의지국, 정조관념, 불갱이부(不更二夫)는 옛 시대의 윤리라고 치더라도 모정까지 버린다면 어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세상 구경도 못하고 미완성 상태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생명들보다는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아야 할까!

우리는 가끔 외국인의 입양아로 자라서 모국이라고 찾아와 부모와 동기를 찾겠다는 젊은이들을 본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일이 아닌데도 처연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갸륵하다. 이들에게서 핏줄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 혈육이 아니던가.

그런데 욕정에 불타고 극기도, 인내도, 시비도 가리지 않고, 제몸 하나 관리는커녕 모정마저 던져버린 이들, 철잃은 뻐꾸기네 들은 또 다른 어느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 버리지나 않을는지, 이제는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좋으니 이 철 잃은 뻐꾸기네 들만은 영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 철 :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 계절의 뜻,
한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썼음.

〈끝〉

學通今古才猶富 養到身心氣象超
(학통금고재유부)(양도신심기상초)

배움은 고금을 통하여야 재능이 풍부하게 되고
수양은 신심에 이르면 기상이 초월 하여진다.

-심우식 作-

<특집>

龍門寺는 昭憲王后의 원찰(願刹)이었다.

龍門寺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접리 625번지 용문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용문사의 연혁을 보면 신라 신덕왕(神德王) 2년(서기913)에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일설에는 경순왕 (敬順王 : 927~935)이 친히 행차하여 창사 하였다고 한다. 용문사는 世宗29년(1447) 수양대군(首陽大君 : 世宗의 2子)과 그의 비(妃)인 정희왕후(貞熹王后)에 의해 여러 차례 고쳐 짓거나 불상을 모시게 되는 등 王室의 원찰(願刹)로서 새로운 도약을 거듭하게 되었다.

世祖4년(1458)에 쓰여진 〈용문사기〉의 내용을 보면 동국의 제일 가는 사찰이 될 정도로 사세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수양대군이 그의 아버지 世宗의 명을 받아 궁정 안에 내불당을 건립하고 승려 신미(信眉)의 아우인 김수온(金守溫)과 함께 불서(佛書)의 번역을 지휘하는 등 불교의 인연이 깊었던 때문인 듯 하다.

수양대군과 정희왕후

(용문사 연혁 문헌 에서)

용문사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동국제일의 가람' 이라 불릴 만큼 사세가 확장된 것은 수양대군과 그의 비인 정희왕후에 의해서였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아들로 文宗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이고 왕비(王妃)는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이다. 처음 진양대군에 봉해졌다가 후에 수양대군으로 다시 봉해졌다. 文宗2년(1452)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端宗)이 즉위하자 이듬해 10월에 계유정란(癸酉靖難)을 이르켜 왕위에 올랐고 1456년 이른바 死六臣이라 불리우는 선비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자 이들을 모두 사형시켰다. 세조2년(1457)에는 단종과 동생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죽였고 세조13년(1468)에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申叔舟, 韓明澮, 具致寬)등의 세 중신을 院相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며 정치를 펴다 그해 9월에 죽었다.

세조의 치적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찰을 중창하며 불경을 언해(諺解 :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고 불교음악을 정립하는 등 불교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비로 세종원년(1418) 홍주에서 태어났다. 영의정 윤번(尹璠)의 딸로 세종10년(1428) 수양대군과 결혼하였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면서 존호를 자성(慈聖)이라 하였다. 세자인 예종(睿宗)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다 1년 2개월만에 죽고 또 덕종(德宗)역시 요절하면서 세조의 손자이자 덕종의 둘째 아들인 成宗이 13세로 즉위하자 19년간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고 성종14년(1483)에 66세로 죽었다.

정희왕후는 세조와 더불어 많은 사찰을 중건 또는 창건하는 등 많은 불사를 하였는데 특히 세조가 죽은 10여년간 수렴청정 하면서 더욱 많은 불사를 하였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세조의 어머니이자 세종의 妃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52세로 죽자 世宗29년(1447) 용문사에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새로 보전(寶殿)을 짓고 불상(佛像) 2위와 보살상 8위를 모시며 소헌왕후의 원찰(願刹)로 삼았다. 원찰이란 원당(願堂) 이라고도 불리거니와 원주(願主)의 生前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사망한 선조의 명복을 비는 사원 곧 진전사찰(眞殿寺刹)을 말한다.

용문사가 어떻게 해서 소헌왕후의 원찰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실은 알수 없으나 〈용문사기〉에는 아예 절이 소헌왕후의 원찰이라고 적고 있다. 그것은 소헌왕후가 죽은 뒤 수양대군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를 위해 불상 2위와 보살상 8위를 조성하여 용문사에 모셔라' 라는 말을 듣고 당시의 고승 신미(信眉)와 학조(學祖)의 권유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소헌왕후의 원찰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수양대군은 용문사를 소헌왕후의 원찰로 삼은지 1년후 부인 정희왕후와 함께 용문사에서 경찬법회(慶贊法會)를 베풀고 7일간 기도를 하다가 6일째 밤에 사리 6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때 사리에서 빛이 나와 대낮과 같이 밝히는 상서로움이 있자 절을 원찰로 삼았다고 기문은 적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른 후 절에 친히 행차하거나 봄가을에 식염(食鹽)을 보내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왕위에 오른지 4년후인 세조3년(1458)에 절을 중수하고 세조4년(1459)에는 큰 종을 만들어 보시함으로써 절의 이름이 빛났으며 〈용문사기〉의 내용대로 결국 동국의 첫 번째 가는 절이 되었던 것이다.

세조가 죽은 후에도 그의 비인 정희왕후는 용문사를 소헌왕후와 세조의 원찰로 삼아 불사를 더욱 크게 일으켰다. 당시 정희왕후는 단명에 간 그의 어린 아들 예종(睿宗)과 덕종(德宗)을 대신해서 수렴청정 하던 당시였던 점으로 보아 절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성종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따라서 절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계속해서 그 사세(寺勢)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정희왕후는 그 이후에도 회암사의 주지였던 처안(處安) 스님에게 용문사를 크게 고쳐 짓도록 하고 있다. 중수기에 의하면 정희왕후가 처안스님을 회안사로 오게 했다 다시 용문사로 오게 한 것도 다 중창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용문사는 이때 1년이상의 중창을 통하여 그 규모는 모두 옛 모습대로 되었는데 누각이 높고 집이 넓으며 구조가 굉장하고 단청의 찬란함은 오히려 전보다 훨신 훌륭하였다고 한다. 사실 정희왕후는 조선시대 역대 왕후 가운데 첫손 꼽히는 호불의 왕후로서 용문사 뿐만 아니라 봉선사, 회암사, 낙산사, 오대산 상원사 등에서 많은 불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文化部-*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下)

沈 星 求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자녀를 거부하는 현상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유의해야만 한다.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예의 질서 문화가 가정 내에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

형과 동생의 엄격한 구분, 부모와 자식의 역할, 이웃과 혈족간의 예절을 다시 확립하여야 아름다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정형태를 고집할 수만은 없게된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국가사회의 기반이 약해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가정 내 예절 바로 세우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사회적 관계의 최소단위로 보고 가족윤리를 매우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가족윤리의 중심을 효(孝)사상에 두고, 부모에 대한 참사랑과 자식의 의무가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윤리의 핵심은 전통적 예의 문화의 재현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4. 사회예절 확립의 필요성

사회예절은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원초적인 출발이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원리는 일방적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는 것이며,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이라는 점에 특성이 있다.

즉 가정예절이나 확충된 사회예절이나 상호간의 의무가 충실히 수행 될 때 예절은 더욱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논어〉에 임금은 임금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논어안연〉고 한 내용은 사회예절이 어느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윤리임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름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면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사회질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그 명분은 허명(虛名)이요, 질서의 파괴는 물론, 더 나아가 인간존재의 기반까지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다움의 사랑과 자식다움의 효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모와 자녀간의 일체의식이 이루어지며, 형 다움의 우애와 동생 다움의 공손 그리고 윗사람의 이해와 아랫사람의 순종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형제간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의식이 확립된다. 또한 남편다움의 올바름과 부인다움의 덕성이 올바르게 구현될 때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조화를 이루며, 지도자다움의 사랑과 아랫사람다움의 충성이 올바르게 구현될때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구조를 밝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천부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경(孝經)에서는 효는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효경 제1장〉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효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기』에서 효는 사랑의 깊음이다' 라고 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 이때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관계의 사랑이거나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다. 부모의 자애(慈愛)를 전제로 한 사랑이 아니며, 효도를 의식한 사랑이 아니다 어떤 전제나 보상이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아가페의 성화(聖花)된 사랑이다. 그러므로 비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애로 표현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요구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선천적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식의 효도를 전제로 한 사랑이 아니며, 대가와 보상을 전제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륜이 아니라 천륜에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효경』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도는 천성(天性)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자기 본성에 내재된 천성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천리에 따르는 것이요, 우주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도 보편적인 윤리인 것이다.

율곡은 1577년 왕명에 의해 격몽요결을 저술한다. 〈실천도 덕을 주도함의 내용으로〉그뒤 1582년 1월에는 왕명에 의하여 김시습전과 학교모범에 관한 논문을 쓴다.

〈끝〉

成均館 典學. 파주문화원 부위원장 沈 星 求

통정대부 수 광주부윤 심공행장 ⑦

전부인 新平李氏는 參奉 彦慶의 따님으로 一男을 두었으니 若河요 後夫人 咸平李氏는 進士 貞陽의 따님으로 甲戌年 10月 14日에 出生하였으며 享年은 59세였다. 아름다운 덕이 있었고 大義에 통달하여 위로는 어른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를 가르침에 모두 예법에 합당하였다. 또한 가사를 잘 다스려서 公이 생산업을 일삼지 않았는 데에도 안으로는 자질들을 잘 기르고 밖으로는 빈객을 잘 접대하였다. 궁곤한 친족과 친구에게 구호의 은혜를 베푼는데 있어서도 부인이 애써 받들고 찬성하였다. 乙未年 이후로 재화와 사고가 잇따라 가산이 탕진되자 부인이 근심으로 병을 얻어 침중하였는데에도 오히려 능이 법도있게 잘 다스려 살아있는 사람은 의뢰할 바가 있었고 죽은 사람은 시체를 안장하게 되어 공으로 하여금 집안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였으니 이러므로써 공이 더욱 중하게 여겼다. 三男六女를 두었으니 아들 若濟는 判事公의 후사가 되었고 다음 若沂는 進士요 다음은 若潰이다. 女는 南平縣監 張世明, 進士 洪箕敍士人閔周鼎, 權恕에게 출가 하였고 그 다음은 즉 나 得謙의 아내이며 다음은 출가하지 못하고 죽었다. 若河는 王子 慶昌君의 딸 琈에게 장가들어 二男二女를 낳았으니 男은 滂潭滂이요 사위는 李泂 李晩福이며 若濟는 參判 金槃의 딸에게 장가들어 二男二女를 낳았으니 男은 澈湛이요 사위는 柳鳳瑞이며, 若沂는 초처인 閔煦의 딸은 자녀가 없었고 후처인 司果 李希顔의 딸이 三男一女를 낳았으니 男은 沖灁이요 다음은 公을 따라 갔다가 적소에서 죽었고 딸은 미성이며, 若潰은 幼學 金萬始의 딸에게 장가들어 二男을 낳았으니 어리다.

張世明이 五男을 낳았으니 始顯 夏顯 致顯이요 다음은 어리며, 洪箕敍가 五男二女를 낳았으니 潾 瀅 澤이요 다음은 어리며, 閔周鼎 權恕는 내외가 함께 요절하고 후사가 없으며 趙持謙이 二女를 낳았으니 어리다. 滂은 후사없이 요절하여 아우인 潭의 아들을 양자하였으며 沖이 一男一女를 두었고 李泂이 二女를 두었으며 李晩福이 二男을 두었으며 張世顯이 一男을 두었으며 洪潾이 一男을 두었다.

공의 자녀들이 잇달아 요서하였으니 새집이 엎질러지면 알이 파손되는 것은 본연의 이치이며 趙啓遠의 가문도 자손들의 죽음이 공의 가문과 대략 같았으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지 자연의 도리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公이 廣州府尹으로 있을 적에 내 나이 열여섯살로 公의 가문에 장가들었다. 비록 몽매하였으나 공의 계획하고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더니 公事가 있으면 아전 몇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입으로 불러줌에 아전들이 그 말을 따라쓰지 못하였다. 또 고을 일은 조리정연하고 빈틈없이 다스려 밤중까지 쉬지 않았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柱後(법관이쓰는 갓)를 썼고 아전을 단속함에는 젖은 섶을 묶듯하였으며, 청탁은 행하지 않았으니 비록 재상의 지위에 있는 요인들의 부탁이라도 조금도 顧積(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것, 즉 자신을 위하여 요로에 있는 높은 사람의 청탁을 들어준다는 말인듯)하지 않을세 비방하는 말이 많히 일어나 친척들이 조금 겸손하도록 서로 권하였으나 公이 동요하지 않았으니 이에 公이 충성스럽고 근면한 데에 감복하였다.

장차 체포되려할 때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며 친구들이 머리를 떨구고 두렵게 여겼으나 公은 전과 같이 바둑을 두었다. 감옥에 갇혀서 각박한 옥관과 옥졸들을 상대하여 추위와 더위를 지낼세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으나 公은 태연자약 하였다.

귀양을 가려고 감옥을 나와 집사람들과 서로 만나 볼세 어린 아녀들이 울며 슬퍼하여 곁의 사람들을 비감토록 하였으나 公은 한결같이 슬퍼하거나 괴로운 말을 하지않고 태연하게 귀양길에 올랐으니 이에 공의 도량에 깊이 감복하였다. 멀리 영남 해변으로 귀양가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올세 가족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외로운 몸으로 지극히 고달프고 비참하여 사람의 정리에 참지못할 것이 있었으나 답답해 하거나 근심스러운 안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일의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時事의 잘잘못을 듣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랑케들이 중화를 어지럽히고 국경 방비에 소루한 것으로써 때때로 비통분격해 하면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곤 하였으니 이에 공의 확정된 실력과 높은 식견에 바라보고 미치지 못할 것이 있었음을 더욱 감탄하였다.

아! 公은 진실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비록 그러나 小子가 어찌 감히 공의 끝없이 넓은 애사(涯涘)를 어찌 엿보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일찍이 듣건데 군자들이 공을 논한 말에 이르기를 "해박한 지식은 張茂先(晉나라 사람으로 다방면으로 식견이 매우 해박하였음)에 비등했고 기억력은 楊遵彦(옛날 중국의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듯)과 같았으며, 군사를 좋아하는 것은 陳亮(宋나라 사람으로 기이한 재능이 있었으며 군사를 말하기 좋아하였음)을 배웠으며 忠義는 文山(宋나라 文天祥의 별호 元나라에 잡혀가서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여 충의를 다하였음)을 추모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큰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로에 불행하였으니 즉 馬伏波(漢나라의 용맹있는 장수로 남만을 정벌하러가 전사한 馬援)와 같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평생의 대략을 말하였다고 하겠다.

아! 외람되게 몽매한 이사람으로써 일찍이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신 길은 은혜를 입은 것이 진실로 범상하지 않았었더니 淸塵(훌륭한 유풍, 말은 자취)이 이미 멀어져 九原(황천을 말함)을 이르키기 어려웠다. 나의 아내가 죽음으로부터 篙丘의 감회(인생의 허무한 감회라는 말인듯)가 더욱 간절하였드니 다행이 지금까지 죽지않고 살아있어 공의 遺事를 기술하면서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금옥처럼 맑은 음성을 추모하니 슬픔을 감당할 수 없다. 도리켜 생각컨데 나의 서투른 문장으로 公의 청년시절의 행적을 다 수록하지 못하여 소루하고 거친 것이 이와같았다. 그리고 공이 모함을 받은 전말에 있어서는 비록 공이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또한 대략을 서술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략을 기술하여 立言君子의 채택에 대비하였다.

여서풍량후인 조지겸 지음(숭정 30년 계축(1673년 6월)

〈다음호에 계속〉

人 事

東燮 : 문화 관광부 법무과장
均欽 : 예금 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3부장
憲圭 : 경기지방 경찰청 화성 청문감사관 (경정승진)
相点 : 서울 지하철 공사 종합사령실장
載旭 : KTF 컨버전스 상무보급
允球 : 스카이 라이프 특수 영업팀장
昌來 : YTN 미디어국 영상제작팀
厚植 : 코래드 전무이사 승진
章鎭 : 농협중앙회 부산 구서동 지점장
載文 : 대한항공 상무보 승진
載五 : 국민은행 제휴 상품팀장
俊輔 : 대법원 재판 연구관
甲輔 : 서울지법 판사
活燮 : 천안지원 판사
瑩眞 : 부산지법 판사
載南 : 시군 법원 판사 지명 (하동군)
學鎭 : 광주지검 검사
載賢 : 목포지청 검사
相植 : 효성그룹 가전 PU 이사대우
俊剛 : 한국 외국어대 도서관 사서과장 (서울)
鉉秀 : KT 전북 기획본부 팀장
範燮 : KT 인력 관리실
周敎 : KT 기술 관리실
錫茂 : 한남대 교무 연구 처장
慶久 : 성균관대 식물원장
載權 : 나사렛대 사무처장
完圭 : 성균관 대 총무처장
岐輔 : 경기도 제2청 경제 총괄과장
明裁 : 용인 태일 초등교장
在坤 : 고양 장촌 초등교장
文子 : 용인 마성 초등교장
載龜 : 안성 죽화 초등교장
진귀 :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장급)
相玉 : 서울 방현초교 교장
鎭貴 : 서울 신림초 교장
銀燮 : 한국 항공 우주연구원 우주 시험 실장
慶錫 : 순천향대 영어 교육실장
熙暎 : 관동대 의료원 적정진료실장
奉謹 : 동아대 부총장겸 박물관장
창구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永穆 : 삼성 서울병원 흉부외과,폐, 식도외과장, 폐암팀장
炫昱 : 부산지법 법관 신규 임용
完輔 : 충청대 정보관리 실장
益魯 : 새한미디어 경원지원 실장(상무)
洪燮 : LG 투자증권 하남지점장
인식 : 경향신문 편집국 편집1부(부장대우)
相烈 : 에너지 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 연구실장
현제 : 코스닥 신원 종합개발 감사
재학 : 코스닥 에스디 이사
燦燮 : 대한 광업 진흥공사 안전 사업부장

任 員 會 費

지도위원	龍俊	300,000	2002
이 사	鼎澤	160,000	2002～3
	在敦	80,000	2003
	載重	160,000	2001～2
	彰來	80,000	2002

성금감사합니다

재석	50,000	안양	정보	30,000	울산
洪植	20,000	안성	대택	30,000	청송
철원종회	200,000		영배	50,000	인제
명섭	30,000	전남곡성	沈宜	100,000	대구
재환	30,000	고양	구용	30,000	충무로
승태	30,000	창원	建燮	100,000	화성동탄
재훈	50,000	부천	광보	50,000	영주
재형	30,000	강릉	의수	20,000	
춘섭	30,000	을지로	敬模	100,000	감산종회장
재철	30,000	제기동	全北 靑松會	300,000	
永培	50,000	인제	하성종회	150,000	김포
용석	50,000	예천	원식	30,000	全南谷城
玟燮	30,000	석관동	경식	30,000	행당동
태섭	30,000	화성향남	정진	30,000	수원
운섭	50,000	김포	副正公宗會	300,000	牙山

♤ 송 금 안 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29-5548